

박물관에 내걸린 담양

국립광주박물관 25일~11월 1일 '담양' 특별전

담양(潭陽)은 '한반도의 대숲'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햇살을 담은 못'이라는 지명처럼 예로부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큰물이 들어도 물난리를 겪지 않는 땅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호남가'에서 담양은 '백리 담양 흐르는 물'로 표현되고 있다.

남도문화展

역사·문화 유산

250여점 전시

비옥한 땅, 넉넉한 물, 푸른 대숲과 같은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일찍이 사유와 풍류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선 중기 면앙정 송순을 비롯해 송강 정철, 석전 임억령 등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정자를 짓고 자연을 노래하며 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이 탄생된 곳도 바로 담양이다.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로 지칭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문화 유산이 꽃피웠고, 곳곳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이 담양군과 함께 25일부터 11월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전 '담양'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도문화전' 시리즈의 여섯 번째 전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소개한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전시에는 보물 제1555호인 '용흥사 동종', 보물 제260호인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새김돌은따무늬토기 등 태목리유적 출토 유물, 서봉사에서 출토된 나한상 등 모두 250여점이 전시된다.

1부는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담양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환경과 역사·문화의 흐름을 사진, 지도, 연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2부에서는 '선사와 고대'를 고고학적 문화를 다룬다. 수북면 풍수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뱀석기로 1~2만 년 전 인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고, 전남지역 최대 취락유적으로 평가되는 대전면 태목리유적에서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담양지역 생활상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59년에 알려진 봉산면 제월리고분과 최근에 조사된 고서면 월전고분 출토유물을 공개한다.

3부는 '중세와 근세'를 주제로 관방·생산유적, 불교문화, 유교문화, 누정과 가사문학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불교문화' 부분에서는 용흥사동종(보물 제1555호)을 비롯해 용흥사 등 담양의 고찰에서 간행된 불교서적으로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불교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용화사를 창건한 목담스님이 수집했던 수많은 자료 가운데 정수로 꼽히는 보물 제737호 '불조역대통제(佛祖歷代通載)' 등을 만날 수 있다.

누정과 가사문학에서는 담양에 세워진 조선시대 누정과 원림, 사람 그리고 이곳을 배경으로 탄생된



보물 제1555호 '용흥사 동종'

작품과 시인묵객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사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근대와 현대'를 다루는 마지막 4부에서는 담양의 인물, 근대교육, 문학, 미술을 만날 수 있다. 의병장 녹천 고광순, 고하 송진우, 춘강 고정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담양을 빛낸 인물들을 조명한다. 또 축물시장의 변천, 축제공예의 발전과 계승 등을 함께 살펴본다.

조현중 관장은 "이번 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 속에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마련됐다"며 "관람객들이 담양의 풍요로운 자연과 인문학적 감성이 깃어낸 아름다운 누정과 문학적 성취를 만끽하고, 대숲으로 상징되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성된 담양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원광 서주동인' 서예 전시회

광주 메트로 갤러리 26~9월 1일



조정욱 작 '매난국죽'

'원광 서주동인'(회장 양영이)이 26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광주 메트로 갤러리에서 15번째 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원광 서주동인'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원광대 미술대학에 신설된 서예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1999년 결성된 이후 해마다 정기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강성철·김소담·반달림·안재성·양 영·양철순·유주리·윤관희·윤정연·이수정·이완·이종암·이정미·임지선·장수지·조서현·조용연·조정욱·최나라·최 미·함소연 회원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 캘리그래피, 현대서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3단체 국전초대작가, 각 지역 초대작가, KBS아트비전, 문화원장 및 국장, 학원장, 문화재단위원, 문화예술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서예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원광 서주동인'은 그동안 익산, 전주, 대전, 서울 등으로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29일 오후 6시다. 전시 기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운뎃시 및 인장새기기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010-6485-77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폭 한가득 담은 장흥

광주신세계갤러리 '정남진 장흥, 문항에 취하다' 展

내달 22일까지

화가·문인

20여명 참여

풍부한 물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곳 정남진 장흥의 아름다움이 화폭을 물들인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신세계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2일까지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정남진 장흥, 문항에 취하다'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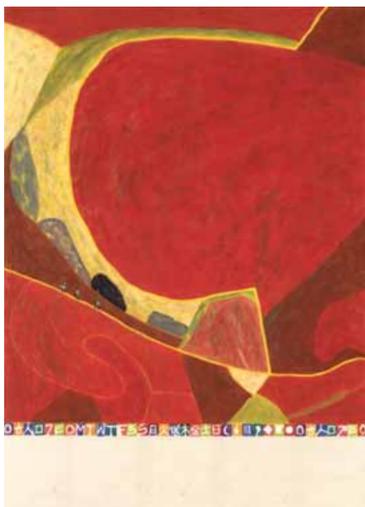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남도문화를 이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 전시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작가들과 함께 남도 곳곳을 답사하고 이 과정에서 느낀 영감을 표현한 작품과 답사기 등을 제작해 남도의 의미를 살펴왔다.

열입곱번째 여정지는 '장흥'으로 전시에는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의 미술작가 및 문인 20명이 참여한다.

참여 작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고창선, 김범석, 김상연, 김선주, 김우정, 박소현, 박일구, 서용선, 손지, 신태수, 윤남웅, 이구용, 이동환, 이이정은, 장재민, 조장은, 조해영, 황중환, 황풍년씨 등이 개성 넘친 작품을 선사한다.

이들은 작품을 창작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1~23일 장흥 곳곳을 사전 답사했다. 첫날 부춘정, 동백정, 보림사, 해산토굴을 답사한 작가들은 이른날 남포소 등섬, 한승원생가, 한재고개, 이청준문학자리, 천관산을 둘러봤다. 셋째 날에는 방촌마을, 존재고택, 위성통고택, 장천재를 둘러보면서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그동안 '새천년, 우리에게 광주는' '남도2천리' '남도의 젓줄, 생명의 강, 영산강 3백50리' '진도 소리' '강진, 숨; 결' '순천 삶, 그리고 더'전 등을 통해 남도를 재조명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선두 작 '서편제'

김원중의 달거리 8월 행사

31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뿡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8월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누가 세대가리라 하는가'이며 노래와 김현국(사진) 탐방기의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김현국씨는 시베리아 1만2000km를 모터사이클로 횡단한 탐험가다. 이날 공연에서 김씨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우쿠라이나를 거쳐 흑해에 도달하는 먼 여정을 들려준다.

김원중씨의 노래는 물론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일렉트릭 사운드를 함께 들려주는 '네티나무 밴드'와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들려주는 '루트머지' 등이 무대를 꾸민다. 또 화가 주홍씨의 '샌드에니메이션'과 소프라노 유희민씨의 공연도 이어진다.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공연을 기록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후 버스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마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중산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